

코로나19 영향... 소득보단 고용유지 우선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3.61 (-2.45) ↓ 금리(국고채 3년) 0.854 (-0.006)
 ↓ 코스닥 778.39 (-2.80) ↑ 환율(USD) 1205.70 (+4.80)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 추진해왔던 현 정부가 역대 최저 인상을 기록하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도 낮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회 이를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들이 자칫 직원을 줄이는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랐을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이들의 생계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앞선 결과로 보인다.

과거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산입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넣기로 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는 더 적어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인 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왜?

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충격 우려 작용... 노동계 강력 반발



저임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경제위기는 핑계로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멀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책임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금융부채 부담, 대기업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한 이익분배 때문이다”며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

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내놓는 것이 진정 고통분담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

의 설명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계비 개선분 1%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측에서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이라는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 기대했다”며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6대 생활 밀착형 업종 연말까지 무이자 할부결제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6대 생활 밀착형 업종에 대해 무이자 할부결제를 진행한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고객들의 가장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8월31일까지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주고 편의점 1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는 KJ카드 여름 이벤트 ‘하하하하!’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월 결제 때는 할부 이용 기간에 따라 1~4회차 할부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는 은행에서 부담한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고객들의 가장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8월31일까지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주고 편의점 1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는 KJ카드 여름 이벤트 ‘하하하하!’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8만8197건
대촌농협 비 재해보험 가입
1년 전보다 1740% 증가

년 전 5만3062건 보다 20% (1만405건) 늘었다. 비 재해보험 전체 보험료는 11% (47억1200만원) 증가한 486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보다 비 보험 가입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829건에서 1394건으로 565건(68%) 증가한 장성군이였다.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크게 늘었다.

14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지역총국·전남지역총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광주 1410건·전남 8만6787건 등 8만8197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가입 건수는 1년 전 보다 광주 94% (684건), 전남 29% (1만9669건) 증가했다.

가입 보험료 역시 광주지역은 지난해 5억5900만원에서 올해 9억3800만원으로 67% (3억7900만원) 늘어났다.

전남은 669억6800만원에서 930억 4500만원으로 39% (260억7800만원) 증가했다.

비 재해보험 가입 건수와 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전남지역 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6만985가구로, 지난해 (5만594가구) 보다 1만 가구(21%) 넘게 증가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13% (1만2979ha) 늘어난 11만3794ha로 조사됐다.

보험 가입 건수는 6만3467건으로, 1

광주지역도 지난해 26일 신청접수를 마감하며 가입 건수가 1년 전보다 128% (569건) 증가한 1015건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87% (1억800만원) 증가한 2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농협 가운데 대촌농협은 비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이 1740%에 달했다. 광주총국은 송정농협(833%), 광주농협(622%), 삼도농협(400%), 하남농협(300%) 등을 증가율 상위 지역농협으로 꼽았다.

올해 비 보험은 경작불능보상금을 산정할 때 출수기 전까지를 담보기간으로 다. 보험 가입 건수는 6만3467건으로, 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주항공, 휴가철 증편 무안~제주 주 4회 운항

제주항공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국내선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무안~제주 노선이 부정기노선으로 새롭게 신설된다.

이 노선은 오는 10월24일까지 월·금·토·일요일 주 4회 일정으로 운항된다. 운항 일정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낮 12시 10분에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며, 무안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해 2시 30분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부정기 노선은 요일과 기간별로 출발시간이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여수~김포, 여수~제주 노선은 오는 24일부터 정기편으로 매일(주 7회) 운항한다. 해당 노선은 지난 4월부터 부정기 운항돼왔다. 제주항공의 8개 국내선 정기 노선 가운데 전라권 노선은 광주~제주, 여수~김포, 여수~제주 등 3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객 발열검사
확인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차량 이용 고객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은 지난 10일부터 주차장 입구 2곳에서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을 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